

인간의 조상은 영생 누린 경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성자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영이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아주 험준한 길입니다. 그렇고로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나 가는 길이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따로 떠나서 이제그대로 천당 간다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고 말한 것은 사뭇한 거짓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그대로 마음이고, 피 작용이 마음 작용이고로 마음=피가 되는 것이고, 피=몸이 되는 고로 영생을 얻기 전에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할 수 없고 이제그대로 빛으로 화하기 전에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성경이나 불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이제그대로 오늘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기도 하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불경을 사람 입장에서 본 고로 사람이 천당 가고 사람이 이제그대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옵시다.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인간

왜 사람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순간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옵시다. 그렇고로 마귀의 포로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본체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본체로 회복되는 것이옵시다. 사람 속에 영생의 증거가 사람 마음 속에 있다고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죠? 사람이 죽기를 좋아해요,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하죠? 사람의 심리 작용이라는 것은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이요 심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그대로 그 피가 공중에서 떨어진 피가 아니고 조상의 피로 이어져 내려온 고로 조상이 일찍이 체험을 한 그러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고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 하나님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살아 본 경험이 있는 고로 영원무궁토록 살 때는 행복하게 쾌락이 차고 넘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는 고로 영생이 좋다는 것을 조상의 피가 알까, 우리 후손들의 피가 알까? 조상의 피가 아는 거죠? 조상의 피가 우리 후손들 속에 있는 고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죽지 않는 세상을 살 때에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쾌락 속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었던 고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고로 오늘날 죽기 싫어



구세주 조희성님

하는 마음이 왜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 결국 답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피의 작용인데 그 피는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대답이 나오는 고로 인간의 조상은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려 본 경험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답이 저절로 나와, 안 나와? 저절로 나오죠?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 대로 피가 변하는 고로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되는 고로 결국은 영생할까, 죽을까? 결국은 죽는 거죠? 죽는 마음을 먹으면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그대로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가 없을까? 죽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학설은 과학적이며 논리적

이며 철학적이면서 이제그대로 완벽한 학설인 것이옵시다.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의 학설을 알아 듣기 좋게 쉽게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쉽게 가르쳐주세요?

사람이 영생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그대로 사람의 몸이 빛의 몸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이요, 영생의 불멸체의 영인고로 불멸체의 생명체는 빛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은 중성자 속에 있는 빛이 천 년, 만 년만 되면 없어진다는 그러한 학설이 없죠? 중성자 속에 있는 빛은 불멸의 불멸체인 것이옵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고로 불멸체의 영이 이제그대로 영생의 영이요 영생의 영이 영생의 마음을 이루는 고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만 가지면 그 몸 자체가 빛으로 화해지면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거죠?

중성자속의 빛이 하나님의 영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단에 서거나 단에 안 서도 이 사람 몸에서는 빛이 나와, 안 나와? 아슬이 빛이야, 빛 아니야? 아슬이 빛이야, 아시겠어요? 아슬은 죽지 않는 영생의 이슬이요 불경에서는 감로라고 하였고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성경 이사야서 19장 26절에 이슬이 내리면 땅에서 죽음을 내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사방의 신이 없어진다는 거야, 있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

경에도 쓰여 있고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그대로 영생의 물질이요 이제 중성자속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영원무궁토록 돌아간다는 거죠? 영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물질의 힘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것을 보아 중성자 속에 있는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영생의 영이라는 것이 분명해, 분명치 않아요? 분명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구원 얻는다는 거야,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이 기록된 걸 보아 영생의 본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생한다는 것이지 사람이 영생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구원론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승리제단 식구들만을 위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론을 논하고 영생론을 논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1992년 10월 2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3) 곡식을 사러온 형제들

아담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모두 양식이 떨어져 굶어죽을 어려운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애굽에서는 곡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희는 끼니가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하니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라."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타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무슨 화라도 미칠까 하여 아담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 형제만 떠났습니다. 아담의 아들 열 사람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총리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곡식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아담)의 열 아들들이 요셉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가나안 도단 들간의 구멍이에 빠뜨린 바로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열 명의 형들은 대답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기네 앞에 앉아 있는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직 단(라헬)의 장자만은 동생 요셉임을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라헬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라헬의 품에서 자란 단은 세 살 손아래 동생 요셉이 이복형제들 틈새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만큼은 이십여 년 만에 해후한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의 도단에서 자신에게 '요셉이 애굽을 치리하는 재상이 될 것이다'고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열 명의 형들 중에 오직 단 형만이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써 무시하였습니다. 요셉의 뇌리에 전에 꿈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던 별 열하나와 형들의 벋단들이 자신의 벋단에 절하던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울러댔습니다.



곡식을 사러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다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이 나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 거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식량이 떨어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 나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 스파이아" 하고 다그치는 요셉의 추궁에 깜짝 놀란 열 형제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셔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열 두 형제로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 중 막내동이는 아버지과 같이 지금 집에 있으며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열 형제는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살살이 가나안 집의 사정을 캐묻다가 "그렇다면 너희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자. 너희 중의 아홉 사람이 이곳에 남고 한 사람이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때까지 다른 형제들은 내가 감옥에 가둬 두어야 하겠다. 만약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틀림없이 스파이일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는 열 사람을 사흘 동안 가둬 놓았습니다. 사흘 후 요셉은 다시 열 사람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연히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사흘 전에는 아홉 사람이 남고 한 사람이 가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나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 다만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아홉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먼저 식구들을 굶주림에서 구한 다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깊이 뉘우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 우리들이 옛날 요셉에게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더니 이런 벌을 애굽에 와서 받게 되었구나! 아, 그때 어린 요셉이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 달라고 할 때 용

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행한 죄 값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하고 열 형제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뉘우치는 대화를 듣고 방을 뛰쳐나와 홀로 울다

열 형제들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애굽의 총리가 알아듣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통역을 가운데 세우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이 말하고 있는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형제로서의 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이 터져 나와 그만 방을 뛰어나가서 다른 방에서 한참 동안 울고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들어온 요셉은 신하에게 명령하여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창세기 42장 24절). 그리고 아홉 형제들에게는 각기 부대 가득히 곡식을 넣어 주고, 그들이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도 도로 부대 속에 넣어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옥에 갇힌 시므온은 내가 전에 도단에서 요셉의 양팔을 결박하였더니 이제 나 자신이 그 죄값을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느구나! 하고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홉 형제는 곡식 부대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다가 주막집에서 짐을 풀어보았습니다. 아홉 형제는 자기네가 가지고 간 돈이 다시 넣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담에게 돌아온 아홉 형제는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일찍이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또 베냐민마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더니 안 될 말이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거슬러 고통될 뿐이로다!" 르우벤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못 온다면 저의 두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기십시오. 꼭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담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된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베냐민만은 내 몸을 수가 없어. 그의 형을 죽이고 이번에 또 무슨 화를 베냐민에게 입힐 줄 알아!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 가지고 슬퍼하며 음부(Hades,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느냐?" 아홉 형제는 아버지 아담의 단호함에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